

<주요 Q&A>

Predict health & capacity of infrastructure with accuracy

Q1. 왜 1000이 아니고 0부터 800점으로 범위를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점수와 유사하게 최고점 관례를 따라서 배정하였습니다.

Q2. x.insight가 정책결정하는데만 사용되는 것인지 아님 현업사업자도 사용해서 insight를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마다 권한관리가 되어 있는가요?

주로 CFO 리포팅 용으로 구성하였지만, 현업 사용자도 클라우드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세분화된 점수를 확인하고 유지/보수 할 수 있습니다

Q3. kpi를 사용자마다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스코어 파라미터를 어느정도 조정해서 고객이 원하는 KPI로 적용 가능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KPI는 별도로 추가해야 하고요.

Q4.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좋긴한데 커스터마이징이 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서 데이터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파라미터로 적용하는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Q5. 해당 솔루션이 BI 나 증강분석 등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클라우드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상태 점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Q6. Future Plan에서 higher Accuracy 나머지 2개는요? 질문 드립니다.

세분화된 점수, 예측모델 기능개선과, 고도화된 작업 스케줄링 기능까지
추후에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